

연지화장 연구 I

- 화장의 起源과 연지의 始原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Yeonji' Cosmetics and Make-ups I - Focusing on the origin of Make-up and the beginning of 'Yeonji' Cosmetics -

박춘순 · 정복희*

충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 충청대학 패션디자인과

Chun-Soon Park · Bock-Hee Jung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Dept. of Apparel Design, Chungcheong Colleg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origin of make-up and the beginning of 'Yeonji' cosmetic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1. The origin of make-up can be summarized as being originated from the sexual display to maintain tribes and incantatory religion for their existence. The reason for the preference to Yeonji in make-up is that Yeonji has a characteristic of red in color, which seems to hold effective for the sexual display of human beings.

2. The origin of Yeonji (焉支; Safflower) was from Egypt, but its inception as a cosmetic product was with Huns. 'Yeonji' was a term of Hungro race, and was also called Unji (焉支), Yeonji (燕支), Inji (烟支), Urji (關氏), following the similarity of the sound. These terms were not only the interpretation of the Hunnish sound into Chinese, but also allegorical expression. Unji (焉支), Yeonji (燕支), and Inji (烟支) meant Safflower. Urji(關氏) meant 'Empress' or 'Wife,' which was pronounced Yeonji (燕支) and Asi (關氏).

Key Words : make-up, Yeonji, origin, cosmetics

I. 서론

인간의 미에 대한 욕구는 어떤 물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몸을 수식하는 일로부터 시작되며, 인간을 인간이게끔 하는 단서이자 매체가 바로 옷¹⁾이다. 그리고 옷차림에 화장과 장신구 장식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성장(盛裝)을 했다고 말한다. 그 중 화장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의 본능적 수식 행위이나, 얼굴은 기본적으로 형태가 고정화된 까닭에 얼굴을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은 오직 얼굴에 색을 칠하는 것이다. 이러한 채(彩)는 드러난 자연의 이치를 더욱 선명하게 가시화 하는 일²⁾이므로 동양의

화장사(化粧史)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도 채색화장이고, 이 채색화장품으로 그 역사가 오래되고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이 바로 분(粉)과 연지(胭脂)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 분단장(粉丹粧)이라 하면 바로 얼굴화장을 뜻하는 말이 되었는데, 연지는 비록 분보다 늦은 시기에 출현했으나, 흰 분보다 붉은 연지의 화장 효과가 크기 때문에, 분으로 치장하는 분장(粉粧)보다 연지로 치장하는 단장(丹粧) 즉 홍장(紅粧)이 더 성행하였고 다양하게 발전·변천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단장은 본시 '붉게 꾸민다'는 뜻에서 '아름답게 꾸민다'는 뜻으로 전의(轉意)될 만큼 붉은 연지는 곧 아름다움의 상징이자 화장의 상징이 되기까지도 하였다.

* Corresponding author: Bock-Hee Jung
Tel: 043) 230-2182, Fax: 043) 230-2469
E-Mail: jbh@ok.ac.kr

1) 尉解: 上→위ㅎ→우티/우치/오티→웃→웃: 우리말에 있어서 '웃'은 인간의 몸을 전제로 한다. '위해'는 '上'의 이두표기이며 '上'이 바로 인간의 몸 위라는 말이다.

2) 박용숙(1990), 한국미술의 기원(미술사 근본 문제), 서울:藝耕, 28

오늘날 색채화장 일명 색조화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 양상이 다양화되면서 시각적·심리적 효과로 인한 미적 욕구의 충족과 개성화 추구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지역적 경계의 의미가 없어진 초고속 정보망에 의한 시간과 거리가 축약됨으로서 지구촌의 동시적 트렌드 경향으로, 인류의 화장시장이 세계적인 보편화의 흐름 위에서 빠른 유행의 조류를 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오늘날의 화장에 대한 이해는 비교시각에서의 접근 노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화장의 문화적 배경과 역사적 추이를 주목하는 것은 그 원형을 직시하는 데 효과적인 일 뿐만 아니라 넓은 사고의 폭과 앞을 내다보는 지혜를 얻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지화장연구에 대한 제1보로서 화장문화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접근을 위해 화장의 개념과 그 기원에 대하여 고찰하고, 한국과 중국에서 여자들이 채색 화장을 할 때 사용하던 연지를 중심으로 그 시원(始原)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II. 화장의 개념

역사적으로 볼 때, 화장이란 신체에 이차적·의식적으로 색·광택·형(形) 등을 부가하여 본래의 것을 바꾸는 풍속을 말하며, 물건을 부착하거나 매다는 풍습과 함께 장신법(裝身法)에 속한다.

오늘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계통의 말에는 화장(化粧)과 미용(美容)이 있다. '화장'이란 단어는 원래 외래어로서,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말이며, 개화기 이후에 신식 화장품이 수입되면서 사용된 용어³⁾로 가화(假化)·가식(假飾)·꾸밈 등의 뜻을 지닌다.

'화장'에 해당하는 漢字語에는 가상(假相)·기장(氣裝)·현상(懸想)·화생(化生)⁴⁾·면식(面飾)·면장(面粧)·면장(面牆)·장식(粧飾) 등 다양하나, 면식이나 면장(面粧)이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말에는 장식(粧飾)·장식(粧飾), 단장(端粧)·단장(丹粧), 야용(冶容) 등이 있고 화장품은 장식품(粧飾品)·장림(粧奩)·장구(粧具)라고 했다. 다양한 표현에 따른 의미는 약간씩 달라서, 얼굴 화장만

을 가리킬 때는 야용, 몸단장에까지 이르면 단장, 일반적인 화장일 때는 장식(粧飾)이었고, 장신구까지 치장한 경우에는 장식(裝飾)이었다. 특히 옷차림마저 화사하게 하였을 때는 성장(盛裝)이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화장의 농도에 따라, 옅은 화장인 경우는 염장(淡粧), 짙은 색조화장인 경우는 농장(濃粧)이라고 하였다.⁵⁾ 이 밖에 혼례시의 신부화장을 말하는 응장(凝粧)이 있다.⁶⁾

또한 '미용(美容)'이란 '미粧(美粧)'이라고도 하며, 얼굴이나 머리 등을 곱게 매만지는 일, 즉 용자(容姿)를 아름답게 매만지는 일을 총칭한다. 미용사법에는 '미용'을 "퍼머먼트 웨이브·결발(結髮)·세발(洗髮)·염발(染髮)·두피처리(頭皮處理)·매니큐어·미안술(美顔術) 및 화장 등의 방법에 의하여 용모를 미려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크게 3분하여 두부기술(頭部技術)·미粧기술(美粧技術)·전신미용(全身美容) 등이 있다고 했다.

한편 서양에서는 '화장'이란 말로 메이크업(make-up)·또와레(toilet)·뷰티 케어(beauty care)·드레싱(dressing)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화장과 관련된 의미는 화장품을 뜻하는 코스메틱(cosmetic)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청산행부(靑山行夫)는 "화장품은 영어와 불어로 코스메틱(Cosmetic)이며 독일어로는 코스메틱(Kosmetik)이다. 그 어원은 그리스어의 '코스메티코스(Cosmeticos)'로서 '잘 정리한다', '잘 감싼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여기에서 '코스모스(Cosmos)'란 원래 '질서 있는 체계', '조화'를 뜻하며 무질서, 혼돈의 의미인 '카오스(Chaos)'의 반대개념이다."⁷⁾라고 했다. 이로써 볼 때 서양의 화장 개념은 동양의 그것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장에 대한 개념은 고고학 쪽에서 좀더 넓게 규정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고고학 사전에 의하면, 화장은 역사적으로 원시시대부터 白·黑·赤 등의 기본 안료가 사용되어 왔고 구석기시대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별, 지역, 민족에 관계없이 널리 행해지고 있으며, 그 주요 목적은 주술신앙, 성적인 표시나 보호, 연령 계급 경력표시, 보호 보온이나 은폐·위장 등 다양한데, 크게 본능적(性的, 美的)·실용적(防衛, 보호)·신앙적·표시적(年級·계급·婚否·部族신앙·경험)으로 분류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화장개념은 결과적인 측면에 있어서 '미적 효과'를 의식한 것을 말한다. '미'에 대한 객관적 기준은 절대성이 있을 수 없고 상대성·계층성·시

3) 宋啟貞(1991), 우리나라 傳統化粧文化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

4) 服裝文化協會(1981), 服裝大百科事典(增補版) 上, 東京: 文化出版局, 287

5) 동아세계대백과사전(1982), 서울: 동아출판사

6) 鄭容熙·李炫沃(1998), 傳統化粧文化에 나타난 연지(臘脂)의 변천에 관한 고찰, 복식문화연구, 6, 47

7) 靑山行夫(1976), おしやれの文化史, 東京: 平凡社, 12-13

8) 服裝文化協會, 앞의 책, 287

대성·주관성 등이 개입되면서 서로 혼용되어 왔다고 보여지는데, 아름다움에 대한 기본 개념이 '조화'에 있으므로 화장이란 선천적인 자신의 용모를 시대나 사회 또는 그 문화권 내에서 어떠한 필요에 따라 선별·선호·선택된 '미' 개념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해서 꾸미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⁹⁾

엄격히 말하면 화장의 기본 개념은 원래의 얼굴을 감추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역할은 기본적으로 '감춘다'와 '보여준다'의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 '감춘다'는 것은 결점이나 약점을 카뮤플라즈(camouflage; 위장)한다는 것이고, '보여준다'는 것은 '감춘다'보다 적극적인 행위로서 새로운 자신을 표현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즉 맨 얼굴 그 자체가 전달하는 정보(印象)를 인공적으로 '감추어서 보여준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가화(假化)·가식(假飾)·가상(假相)·꾸밈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일종의 허위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으며, 예로부터 화장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 등 부정적인 인식이 끊이지 않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¹¹⁾

그러나 화장의 본질이 '외관을 장식하는 것'이고, '타인에게 한 개체를 주목시키기 위한 것'¹²⁾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관점에서 화장의 개념 규정은 시대나 문화권의 미의식에 기초를 두어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개인의 심미안과 취향에 따라서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III. 화장의 기원

'화장'의 기원이 언제부터이며 무엇에서 기인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인류의 발생과 함께 그 징조가 나타나고, 문화의 발달과 더불어 시작되었으며, 도구와의 관련을 갖고 점차로 진보해 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인간을 볼 때, 인체의 두상(頭狀)은 얼굴과 머리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머리는 그 형태(헤어스타일)에 있어 가변성이 있으나 얼굴은 불변이므로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채색의 힘을 빌리는 것이 용이했

을 것이다.

춘산(春山)¹³⁾은 "얼굴에 색을 칠하는 풍속의 기원은 구석기시대의 원시인류인 네안데르탈인이 살던 무렵으로, 몸에 색을 칠하고 문신을 해왔으며, 또 이어 구석기시대 원시인 사이에서도 행해졌다고 추측할 수 있다"고 했고, 그 무렵 몸에 색을 칠한 이유는 수렵시 포획물을 추적해 갈 때 주변의 자연과 어우러지게 위장하기 위하여·자기에게 다가오는 적(敵)이나 동물을 무섭게 하기 위하여·주술이나 신앙 때문 등이었다고 했다. 또한 통구(樋口)¹⁴⁾에 의하면,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타스마니언)은 삼림에서 수렵을 할 때 황색과 흑색의 동물모양이나 독수리나 사자, 뱀 등 강한 동물의 모양을 몸에 그렸다고 했다. 이것은 동물로부터의 방어이며, 강한 것에서의 동경과 힘의 과시 등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인 하나였다. 또 몸이나 얼굴에의 채색은 주술적, 신앙적인 행위로서 일종의 암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적(赤)은 불의 색이고, 타오르는 태양의 색이며, 인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피의 색으로서 신비적인 생명력을 나타내므로, 적색을 악마를 물리치는 색으로 믿고, 눈·귀·코·입 등 몸의 구멍에 칠했던 것이다.¹⁵⁾

매장습관이 있었던 네안데르탈인의 유골은 적갈색과 흑색으로 채색되어 있었으며, 뉴기니아의 어느 종족은 시신을 적갈색으로 채색하고 장식품과 함께 매장한다고 한다. 솔로몬 섬에서도 관(棺) 전체를 착색하는 습관이 남아 있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 여자들은 장송(葬送) 때 신체를 흑색이나 백색으로 칠한다고 한다. 파푸아·뉴기니아의 경우도 사자(死者)와 그 연고자의 피부를 백점으로 착색하는 습관이 있다.¹⁶⁾ 이렇듯 사자를 사(死)의 색인 흑색으로 착색하거나 신(神)의 색인 백색으로 채색하는 것은, 생(生)과 사(死), 산 자와 죽은 자를 색으로 구분하는 것으로서 통과례상의 주술행위의 일환으로 보인다. 생자인 원주민들의 신체 도채(塗彩)도 일반적이었는데, 이것의 이유는 각 부족간의 식별(識別)·외래의 참가 증명·무도(舞蹈)·미적 장식 등 여러 가지로 생각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들은 항상 백점토·적색·황색의 광토(鑛土)를 캔거루 자루에 저장하고 있다가 축하할 때에는 전신에 바르며 전투를 할 때에도 일정의 규칙에 좇아서 줄 배열을 결정, 신체 채색

9) 민중예술위원회(1985), 삶과 멋, 서울: 공동체, 80

10) 宋旼貞, 앞의 책, 4

11) Hiroto Murasawa(2002), 처장과 변신을 위한 화장, 한국의류산업학회지, 4(1), 5

12) 中天志郎(2001), 動物の化粧, 資生堂ビューティーサイエンス研究所編, 化粧心理學, フレグランジャーナル社, 329

13) 倉持喜久子(2001), 化粧の歴史, 資生堂ビューティーサイエンス研究所編, 化粧心理學, フレグランジャーナル社, 297, 재인용

14) 倉持喜久子, 위의 책, 297, 재인용

15) 倉持喜久子, 위의 책, 297

16) 城 一夫, 「色彩博物館」, 明現社, 1994, p.73

을 행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신체장식은 원주민에게 있어서는 극히 유효한 시각언어로서, 경사·전투·동축의 식(同屬意識)과 이성(異性)에의 어필(appeal; 호소력, 매력) 등의 의식·의례에의 참가증명 등의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¹⁷⁾

이렇게 방어와 의식·신앙·주술적으로 선택했던 채색은, 처음 실용성에서 비롯되었으나 차차 그리는 형태가 장식적으로 변모되고, 보다 강력함·좋은 모양·아름다움 등의 미적 효과를 위해 변해간 것이다. 그것은 색이나 형의 가치가 아닌, 결과적으로 미(美)라고 생각하는 마음, 즉 미로서 선택한 것에 '미'가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사육제에서 동물 등의 가면을 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기원을 원시민족이 행한 의식(儀式)의 흔적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위장에서 변신 즉 본능적인 위장에서 미의식 표현으로의 전환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신체의 형을 변경하거나 상흔을 내는 행위도 넓은 의미에서 화장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원시시대의 화장에서 보듯 사회적 지위와 종교적인 것에 의해 행해진 문신도 그러한 화장의 하나이다. 문신의 경우는 육체 손상의 풍습, 기념기호(記念記號)나 부족계층·소속집단의 표시, 용기와 자력(資力)의 과시나 남존여비 등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¹⁸⁾ 이는 오늘날에도 미개발 국가에서 자주 볼 수 있으며, 문명사회에 있어서는 소속 집단의 일원이라는 표시로서 또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등 그 잔재가 남아있다. 얼굴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채색이 일시적이며 가변성이 다양한데 비하여 문신은 어느 정도 영구성을 띠기 때문에 고정적 인식을 위해서는 유효할 것이다.

그리고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Charles Dawin)은 “동물에 수컷·암컷이 있듯이, 인간에게도 남녀가 있다. 이성의 주의(注意)를 끌기 위해 동물은 울음소리를 낸다. 그에 대해 인간은 화장이나 의복에 의해 이성의 주의를 끈다. 그래서 아름답게 화장하거나 아름다운 의복을 입는 사람이 소기(所期)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¹⁹⁾고 말했으며, 그밖에 건강상의 목적 즉, 풀쭉을 바름으로서 해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거나, 피부를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화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미를 추구하는 마음은 인간의 본성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은 미를 추구함으로써 매일의 생활을, 나아가서는 인

생을 즐기고 있다. 만물은 나날이 성장하는데 이 성장의 극점에 이르렀을 때 육체적으로 가장 풍부미(豊肥美)를 발휘하게 되고 용모 자체에도 젊음과 미가 넘치게 된다. 그러나 이 성숙기를 정점으로 생장(生長)은 멈추고 신체는 쇠퇴해 노화하며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 노화를 막는 방도로서 또는 어느 정도 젊음과 미모를 유지하고자 함이 미화로 연결되었고 이것이 곧 '화장'의 출발이라는 견해²⁰⁾도 있다.

'미(美)는 늙지 않는 모양·'미로서 늙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순자(荀子)가 성상편(成相篇)에 언급한 말이다. 인간은 항상 미를 구하여 늙지 않고 늘 젊고 아름답기를 갈망하며 이는 인생의 영원한 바람이자 즐거움의 극치라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은 중국인의 경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 모두가 원하는 끊임없는 욕망이다. 이러한 미를 추구하고 불로(不老)를 바라는 것에서 화장이 발달한 요인의 하나를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타고난 본래 얼굴을 여러 가지의 미용술과 화장품을 사용하여 용모를 수정·보단(補短)하고 미화하는 것이 화장의 목적이다.²¹⁾

이렇듯, 화장의 발달은 인간 본래의 신체적 조건과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미의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왜 인간이 화장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동물의 세계를 좀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물에게 사람과 같은 의미에서의 화장이란 개념을 적용시키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나 원시인이나 미개인의 생활상에서 오늘날 우리생활의 전형을 유추하듯, 포유류의 생태는 인간의 삶의 원형을 유추하는 데에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앞에서 말한 다윈의 견해와도 통하는 것이지만 중천지랑(中天志郎)은 사람들의 화장은 동물들의 '짜짓기 행동'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했다. 동물들도 외관의 색채와 장식으로써 '식별(識別)표시'를 하는데, 그것은 그 개체가 속한 종류를 나타내고(種類識別表示), 성별을 나타내며(性的識別表示), 연령을 나타내기(年齡識別表示) 위함이라고 한다.

'종류식별표시'는 종(種) 특유의 색채와 문양·뿔·이빨 등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무리사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요인이고, 또 이성간교배(異種間交配)를 방지하는 선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성적식별표시'는 번식기 특유의 색채(혼인색)·장식(생식깃털)·냄새(芳香

17) 城 一夫, 위의 책, 74

18) 青木英夫(1979), 西洋化粧文化史, 源流社, 17

19) 青木英夫, 위의 책, 8, 재인용

20) 久下司(1996), 化粧, 法政大學出版局, 1

21) 久下司, 위의 책, 2

腺分泌物) 등으로 나타나게 되며, 유성생식(有性生殖)을 하는 동물에 있어서 암수의 만남이 짝짓기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이 된다. 그리고 '연령식별표시'는 갓 갓 새 새끼의 솜털, 포유류 새끼의 유아문양(幼兒紋樣), 멧돼지나 얼룩말의 줄무늬 모양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유아에 있어서는 부모형제의 보호를 구하기 위한 표시로서의 기능이 있고, 성숙한 동물에 있어서는 생식 가능 연령을 나타내는 제2차 성징적(性徵的) 변화의 표시로서 작용한다. 이들의 식별표시 가운데 화장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은 '성적식별표시'이다.²²⁾

동물들은 종족유지를 위하여 배우자를 구하는 강한 충동이 있고, 더욱이 자기 유전자를 보다 많이 남기기 위해 짝짓기의 기회를 최대화 하려는 본능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동물들의 성징 변화(즉 화장)는 생식행동(生殖行動)과 직접적으로, 즉 외적으로는 성적과시(性的誘示; sexual display), 내적으로는 성(性)호르몬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혼인색(婚姻色) (nuptial coloration)이나 생식깃털(nuptial plumage)이라고 부르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며, 포유동물의 성피(性皮; sexual skin)나, 빨 등도 깊은 관련을 갖는다. 이로써 볼 때 동물의 성징 변화는 색채와 장식, 그리고 그 개체의 깃털과 모(毛), 피부 등의 변화가 주(主)이며, 사람처럼 외부에서 재료를 구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또, 사람에 있어서 화장은 여성이 주체인 것에 대해 동물에서는 성적과시(性的誘示)의 주역이 수컷이라는 것도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배우상대(配偶相對)의 선택권이 대부분의 경우 암컷 쪽에 있고(female choice), 암컷이 선호하는 방향에 따라 진화(성도태; 性淘汰)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반대로 많은 암컷의 경우, 장식이나 색채 변화가 적은 것은 배우상대를 선택하는 쪽이라는 점과 함께 많은 종류에 있어서 자녀양육의 주체가 암컷 쪽이러는데 있다. 자식을 기르고 지키기 위해 눈에 띄기 쉬운 색채나 장식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²³⁾ 그러나 인간의 경우는 동물 세계와는 달리 남성의 경제력과 관련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원숭이 무리에서는 털 색의 변화와 함께 털이 없는 부위의 피부색 변화가 특징적으로 보인다. 이들 무리는 얼굴·생식기 부위·유방 주변에 무모부(無毛部; 裸區)가 있고, 이 부분의 피부색은 번식연령과 번식시기(계절)에 따라 뚜렷한 변화를 보인다. 일본원숭이·아카게자루 등

은 번식시기 前부터 얼굴·생식기 및 생식기 주변의 피부(性皮; sex skin)가 선홍색을 띠고 광택이 증가된다. 침팬지나 만토원숭이 등의 암컷은 성피가 조홍(潮紅)할 뿐 아니라 확실히 종양처럼 부풀어오르며, 게라다원숭이(Theropithecus gelada)는 앞가슴의 무모부가 선명한 붉은 색을 띠고, 또 수컷 벨벳원숭이의 생식기는 놀랄 정도로 선명한 청색으로 변한다.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만드린(Mandrillus sphinx)이라는 원숭이 무리에서는 수컷의 얼굴이 적·청·동색(赤·靑·藤色)으로 채색되며, 같은 경향이 둔부에도 나타난다. 이들 원숭이류에서 보이는 피부색채 변화는 피부 아래 혈관에 의한 발색(發色)이라고 하며, 삼림 속에서 번식 적기에 이성을 유인하는 짝짓기 색(pairing color)으로서의 기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²⁴⁾ 이에 대해서는 대방옥부(大坊郁夫)와 신산 진(神山進)도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²⁵⁾ 그는 「인간 행동학(Manwatching)」을 쓴 모리스(Morris)의 말을 인용하여 화장에는 성(性)을 강조하기 위한 신호로써, 더욱이 적극적으로 이성을 유인할 인상관리의 일환으로서의 성적 과시(display)의 의미도 있다고 했다.

번식기에 이르면 신체의 색채가 변하는 물고기는 그 변화로 이성에게 자기를 과시하고 번식의 기회를 높이는 효과를 발휘한다. 또 통상적으로 암컷 게라다원숭이는 흉부(胸部)에 눈에 띄는 둔부(臀部)의 형태와 유사한 복사본을 갖게 되는데, 즉 둔부에 있는 성기(性器)의 색채와 같게 변화하며, 강도의 증감과 채도의 선명성도 변화를 보인다. 따라서 수컷은 암컷의 흉부를 보고 성교(性交)의 가능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으며 이것을 모리스는 '신체적 자기의태(身體的 自己擬態)'라고 부른다. 여성의 화장법으로서 적색계의 입술을 나타내는 것은 곧 이와 같은 '인공적' 자기의태(自己擬態)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결국 화장의 행위가 무엇에서 기인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대답은 종족 유지를 위한 성적 과시에서 찾아질 수 있다고 본다. 즉 시공을 초월한 영속적이고도 안전한 개체 존속에 바탕을 둔 생명 유지 또는 그에 대한 애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것은 앞에서 기술한 주술적 기능의 기반 위에 인류의 역사가 오래 지속되어 오면서 여기에 미적 기능이 더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구한 화장심리의 핵심은 '붉은 색'의 드러냄에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바로 이러한 욕구에 따라 연지는 매우 일찍부터 요구되었다는 데에 화장사에서 차지하는 연지의 중요성

22) 中天志郎, 앞의 책, 329

23) 中天志郎, 위의 책, 330

24) 中天志郎, 위의 책, 335~336

25) 大坊郁夫·神山進 編集(2000), 被服と化粧の社會心理學, 北大路書房, 30

이 있다고 하겠다.

IV. 연지의 始原 및 표기

1. 연지의 시원

연지의 기원에 대하여 「중화고금주」에 “연지는 주(紂)때부터 일어났다. 홍화의 즙을 응고시켜 연지를 만드는데 연(燕)나라에서 생산된다. 그러므로 ‘燕脂’라 한다.”²⁶⁾고 하였고, 「굴암만필(橋庵漫筆)」에는 “은(殷)나라 주왕(紂王)의 딸(妲己)가 연나라 홍화의 명성이 천하의 으뜸이란 소리를 듣고 그것을 가지고 지(脂)를 만들어 ‘燕脂’라 하였다”²⁷⁾는 근원설화가 있다. 그런가 하면 흉노에 의해 장악되기 前 하서회랑(河西回廊) 지대인 지금의 감숙성에서 동서 중계교역에 종사하고 있었던 월지(月氏)의 ‘月’을 ‘燕’으로 잘못 표기한데서 왔다는 說²⁸⁾도 있다. 우리나라 이규경도 연지는 연나라에서 생산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였다.²⁹⁾

그러나 「전국책」에 “정(鄭)나라³⁰⁾ 周의 딸이 하얗게 분을 바르고 검게 눈썹을 칠하고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이를 모르고 그녀를 본 사람은 신으로 여겼다.”³¹⁾라 했고, 「초사」에는 “분을 하얗게 바르고 눈썹을 검게 칠하니 향기롭고 운택이 난다.”³²⁾라고 했다. 이로써 보면 선진(先秦)시대 여인들의 화장은 얼굴을 희게 하는 분(粉) 화장 즉 분백(粉白)과 눈썹을 검게 그리는 눈썹화장 즉 대흑(黛黑)만 있었을 뿐 붉은 화장 즉 홍장(紅粧)은 없었기에 은(殷)나라 주왕(紂王) 때에 연지가 출현했다는 기록은 신빙성이 없다. 또 秦나라 때에 출현했다는 설(說)³³⁾도 있으나 그 역시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晉代 최표의 「고금주」에 “연지있는 엉경위와 같고 꽃은 만들레

와 비슷하다. 서방(西方)에서 나오며 그곳 토박이들이 그것으로 염색하는데 이름을 연지(燕支)라 한다.”³⁴⁾라고 하였듯이, 연지는 본래 서방에서 자생하는 풀이름으로, 그 풀에서 추출한 염료도 연지라 이름하였기 때문이다. 또 「패사휘편」에 “북방에 연지산(焉支山)이 있는데, 홍화가 많이 난다. 북방 사람들은 그 꽃을 따다가 붉은 색으로 물들였는데, 그중 가장 붉고 깨끗한 것을 취해서 연지(胭脂)를 만들었다.”³⁵⁾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서방은 막연히 중국 서쪽 지방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흉노지역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것은 연지가 연지산(焉支山), 즉 연지산(燕支山)에서 유래하기 때문이다.³⁶⁾ 「태평어람」에 수록된 「서하구사」에, “기련산(祁連山), 연지산은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하다.”³⁷⁾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서 연지산은 오늘날 감숙성 천수현 기련산(甘肅省天水縣 祁連山)의 한 줄기에 있는 산³⁸⁾으로 한대(漢代)에는 흉노의 땅이었다. 따라서 연지라는 말은 한어(漢語)가 아니라 흉노 말이다.

흉노 말로 ‘연지(yani-ci)’는 빨강과 여인이라는 두 가지 의미에서 형성된 ‘빨간 불의 여인’이라는 뜻이라고 한다³⁹⁾. 여기에서 연지풀은 ‘붉은 풀’이며 연지산은 ‘붉은 산’이란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흉노 말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언어의 계통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터키어·몽고어·만주어·한국어 등은 음성학적 특성과 의미의 변천과정 및 어휘생성 법칙에 있어서, 고대 원시 알타이諸語의 형태와 관련있는 특성들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고 한다. 특히 몽고의 고대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흉노족에 대한 기록은 고대 중국의 「晉書」·「史記」·「前漢書」·「後漢書」 등에 보이는데, 관련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고대 중국의 역사자료에 기록된 단어 가운데 고대 흉노어와 관련된 단어들이 278개가 있다. 이 가운데 「史記」에 흉노족의 ‘선우모돈(單于冒頓; tang-juo maodon)’의 왕비를 ‘안

26) 馬縞(1939), 中華古今注 卷中, 商務印書館, 19 “燕脂 盖起自紂 以紅藍花汁凝作燕脂 以燕國所生 故曰燕脂.”

27) 久下 司, 앞의 책, 340 개인용

28) 月氏が 있던 河西回廊지역(오늘날 甘肅省)에 焉支(燕支)山이 있었다. 최치원 撰 「法藏和尚傳」에서 말하기를 月을 燕이라 발음한다. 그리하여 月國(月氏소유) 燕國이라고도 하였다. 그리고 흉노가 이곳을 차지하여 이곳의 이름이 燕이므로 月氏が 燕支로 되었다고 한다. 漢語에서 氏와 支의 발음이 같다.

29) 李圭景, 五州衍文長箋散藁, “以燕國所生故名.”

30) 周나라 宣王이 아우 桓公을 봉하여 지금의 陝西省 渭南縣에 세운 나라

31) 戰國策 趙策, “彼鄭, 周之女, 粉白黛黑立于衢間, 非知而見之者以爲神.”

32) 楚辭 大招, “粉白黛黑 施芳澤只.”

33) 高承, 事物紀原

34) 崔豹(1919), 古今注 卷下, 掃葉山房石印本 “燕支, 葉似薊, 花似蒲公英, 出西方. 土人以染, 名爲燕支.”

35) 稗史彙編, “北方有焉支山, 上多紅藍, 北人採其花染絳, 取其英鮮者作胭脂.”

36) 中文大辭典, 燕支條, “草名 產於燕支山 又作燕脂, 胭脂, 焉支, 烟支, 胭脂”

37) 太平御覽 「西河舊事」, “祁連山, 焉支山, 宜畜養”

38) 일명 燕支山·關支山·刪丹山·大黃山·崦嵫山

39) 金沂宣(1995), 胭脂, 檀君의 어원 고찰. 몽골학3, 한국몽골학회, 26

지(關氏)⁴⁰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나온다. 현대 몽고어에서 연지를 가리키는 'engkesege'는 '얼굴에 바르는 붉은 분'이란 뜻과 동시에 '붉은색으로 수놓은 장식의 點'이란 뜻이 있는데, 이 말은 소그드(sogd)語에 결혼할 여자라는 뜻의 'inc-inca', 고대 몽고어에 결혼할 여자에게 딸려보내는 함(패물)을 가리키는 'inji', 한국의 전통혼례에서 새색시의 두 볼에 찍었던 'yonji(연지)' 등과, 그리고 고대 중국 역사서에 '왕비' 뜻의 'yani-ci(얀지-얀자)'와 일련의 어원학적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engkesege'를 '붉은색으로 수놓은 장식의 점'이란 뜻과 관련하여 몽고어에서 '빨강'이라고 하는 단어의 고대 형태인 'pulaŋan'과 한국어의 '빨다'(palk)⁴¹와 비교해 볼 때도 유사성이 보여, 인간 사유(思惟)의 보편성을 느낄 수 있다. 흉노의 yani-ci에서 ci는 몽고어의 性を 가리키는 접미사 cin, ji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²

삼본정년(杉本正年)은 다음에서와 같이 연지를 연지꽃인 홍화가 아니라 연지흙으로 생각하였다.⁴³ "고대 흉노의 여성은 황하원류의 연지(燕支; えんじ)산에서 채취한 연지(胭脂; えんじ)흙으로 화장했다. 중국에 '안색을 잃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 이 의미는 '연지산이 한(漢)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흉노 여성이 화장을 할 수 없었다'라는 古事를 전한 것이다. 중세 일본의 공경(公卿)이나 여관(女官)들의 입술을 칠한 홍(紅; べに)은 동북(東北)의 홍화로 부터 정제한 염료였다."⁴⁴고 하여 연지화장의 재료를 연지풀이 아닌 연지흙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연지는 홍화(그림1,2)이고 연지산으로부터 그 홍화를 채취하여 화장용 연지를 만들었다. 즉 홍화인 연지를 화장 재료로 사용한 것은 흉노족이 그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지의 표기

흉족이 흉노 말 연지를 처음에는 그 원음대로 '焉支'라고 한자음으로 표기하다가 나중에 燕나라에서 생산된다고 해서 '燕支'로 표기하였는데, 이것은 중국에서 외국어를 한자로 표기할 때 흔히 이용하는 표기법이다. 즉 표음우의(寓意) 음차(音借)와 동시에 뜻을 반영하는 중국의 특징적 표기법의 결과로 보이며 시대의 변천에 따라 연지에 대한 한자 표기도 다양하였다. 중국에서는 焉支·燕支·烟支·關氏·胭脂·燕脂·胭脂·烟支·烟脂·赤西土赤支·赤因脂 등이 보이고, 우리나라에서는 燕脂·胭脂·燕支·胭脂·烟火支 등의 표기가 보인다. 그 典故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焉支'는 「패사회편」⁴⁵의 기록 속에 보인다. '燕支'는 「옥대신영」⁴⁶와, 「육주가」⁴⁷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烟支'는 「여사시중서」⁴⁸에서와 「북호록」⁴⁹에서 볼 수 있다. 또한 '關氏'는 「북호록」⁵⁰에 그 명칭이 보이며, '胭脂'는 「가현사」⁵¹중에 나타난다. 그런가 하면 '燕脂'는 「사물이명록」⁵²에 보이며, '胭脂'는 「중문대사

40) 前漢書 卷94上 「匈奴列傳」, 3749

41) 몽고어에서 '빨강'이라고 하는 단어의 고대 형태를 소급해 보면, pulaŋan > ~fulaŋan > ~hulaŋan > ~ulaŋan > ulan 의 과정을 밟는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pula ~fula ~hula ~ula라고 하는 형태들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알타이 諸語의 고대 pal > pul 형태는, 중세의 hul > chal 과 관련이 있다. 또한 그리이스어 pur, pyr(불:火), 라틴어 fulgere(빛나다), 영어 fire(불:火), fulgent(눈부시게 빛나는), 만주어 fulgiyan(붉은) 한국어 palg, palk(빨다)와도 유사점이 보인다. 조영언(1995), 노스트라트 어원여행, 지식산업사, 57~58

42) 金沂宣, 앞의 책, 21~27

43) 杉本正年(1984), 衣の文化論(2), 衣生活 5月號 No.2, 53

44) 古代匈奴のは, 黄河源流の燕支(えんじ)山から採った胭脂(えんじ)の土で化粧していた. 中國に"顔色を失う"という言葉がある. この意味は燕支山が漢に奪われたために匈奴の女性が化粧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ったという古事を傳えたものである. 中世日本の公卿や女官たちの唇を染めた紅(べに)は, 東北の紅花から精製した染料であった.

45) 唐代叢書 第13冊, 天門渤海刊行本, 清嘉慶丙寅年刊行

稗史彙編, "北方有焉支山, 上多紅藍, 北人採其花染緋, 取其英鮮者作胭脂, 婦人粧時, 用以鮮色, 殊鮮明可愛."

북방에 焉支山있는데 홍화가 많이 난다. 북방사람은 그 꽃을 따다가 붉은 색으로 물들였는데 그 중 가장 붉고 깨끗한 것을 취해서 연지를 만들었다. 여인들이 화장할 때 이것을 사용해서 더욱 아름답다.

46) 陳徐陵, 玉臺新詠, 清乾隆三十九年長州程氏刻本 "南都石黛, 最發雙蛾; 北地燕支, 偏開兩靨."

남방은 石黛으로 눈썹을 장식하고 북방은 燕支로 볼에 장식을 했다.

47) 全宋詞(1965), 中華書局, 1402 韓元吉, 「六州歌」, "認蛾眉凝笑 臉薄拂燕支"

아름다운 눈썹을 보기 좋게 여겨 얼굴에 연지를 얹게 말랐다.

48) 爾雅翼 卷三(1939), 商務印書館叢書集成初編本, 37 「與謝侍中書」, "此有紅藍, 北人採取其花烟支, 婦人粧時作頰色"

그 당시에 홍화가 있었는데, 북방사람들은 그 꽃을 캐다가 연지를 만들었다. 여인들이 화장을 할 때 뺨에 바르는 것

49) 段公路(1936), 北戶錄 卷三, 商務印書館叢書集成初編本, 45 "代國長公主, 睿宗女也, 少嘗作烟支, 棄子于階, 後乃叢生成樹."

代國長공주는 睿宗의 딸이다. 연지를 조금 만들어 보고 씨를 땅에 버렸는데 나중에 그 것이 자라나서 숲을 이루었다

50) 段公路, 위의 책, 45 "匈奴名妻關氏, 言可愛烟支也. 關字音'烟', 氏音'支', 想足下先亦作此讀「漢書」也."

흉노의 부인이 關氏라 불리었는데 사람들이 烟支처럼 아름답다고 하였다. 關 글자의 음은 '烟', 氏의 음은 '支'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읽는다고 「漢書」에 기록되어 있다.

전』⁵³⁾과 『통아(通雅)』에 나타나고, ‘烟肢’는 「여연왕서」⁵⁴⁾에서 확인된다. 또한 ‘胭脂’는 宋代 정대창의 「연번호」⁵⁵⁾에서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赤西土 火支’·‘赤因脂’⁵⁶⁾라는 표기도 보인다. 이들 표기와 출전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연지와 관련된 한자의 발음을 中韓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들 각각의 글자는 성조만 다를 뿐 발음이 거의 같음을 알 수 있다. 연지와 관련된 발음

을 정리하면<표 2>와 같다.

우리나라에서도 燕脂⁵⁷⁾·臙脂⁵⁸⁾·胭脂⁵⁹⁾·咽脂⁶⁰⁾라는 표기가 보인다. 특히 『訓蒙字會』에는 ‘烟火支’라는 한자도 보이니⁶¹⁾ 일반적으로 실용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서기전 198년 흉노의 2대 모돈선우(冒頓單于:목돌;재위 B.C209~B.C174)는 漢의 劉邦이 보낸 漢皇室의 딸과 혼인하였고, 처를 ‘關氏’라 불렀다.⁶²⁾ 이것을 보면

<표 1> 문헌에 나타난 연지 표기

연지 표기	出典			
	연대	저자	서명	인용문
烟支	晉代	習鑿齒	與謝侍中書	此有紅藍, 北人採取其花烟支, 婦人粧時作顏色
	唐代	段公路	北戶錄	代國長公主睿宗女也, 少嘗作烟支, 棄子于階, 後乃叢生成樹.
燕支	南朝	陳徐陵	玉臺新咏	南都石黛, 最發雙蛾; 北地燕支, 偏開兩靨.
	宋	韓元吉	六州歌	認蛾眉凝笑 臉薄拂燕支.
烟肢	唐	司馬貞	索隱引	習鑿齒, 與燕王書, 匈奴名妻作關支, 言其可愛如烟肢也
焉支	唐代	명왕기	稗史彙編	北方有焉支山, 上多紅藍, 北人採其花染絳, 取其英鮮者作胭脂, 婦人粧時, 用以鮮色, 殊鮮明可愛
關氏	唐代	段公路	北戶錄	匈奴名妻關氏, 言可愛烟支也. 關字音‘烟’, 氏音‘支’, 想足下先亦作此讀「漢書」也.
臙脂	宋	辛棄疾	稼軒詞	鵲橋仙慶岳母八十詞, 臙脂脂小字點眉間 猶記得舊時宮樣
胭脂	宋	程大昌	演繁露	古者婦人粧飾, 欲紅則涂朱, 欲白則傅粉, 故曰: ‘施朱太赤, 施粉太白.’ 此時未有胭脂, 故但施朱爲紅也. 胭脂出自虜地
胭脂	明代	方以智	通雅	燕支, 今作胭脂, 古通焉支, 關氏, 燕脂; 字書因作赤西土 絛, 或 綦脂
燕脂	清	厲荃	事物異名錄	燕脂産于燕地 故名燕脂
기타	赤西土 絛(通雅), 綦脂(通雅), 臙脂(槿花樂府), 烟炷(訓蒙字會), 咽脂(星湖僿說)			

- 51) 辛棄疾, 稼軒詞·乙集, 上海涵芬樓影印汲古閣鈔本 “臙脂脂小字點眉間 猶記得舊時宮樣 ” 연지를 조금 미간에 바른 것이 마치 옛날의 궁중식인 것 같다.
- 52) 厲荃, 事物異名錄 卷十六, 粵東鈔本, 清乾隆五十三年刊行, “燕脂産于燕地 故名燕脂 ” 燕脂는 燕나라에서 생산되어 燕脂라 부른다.
- 53) 中文大辭典, 燕支條, “草名 産於燕支山 又作燕脂, 臙脂, 焉支, 烟支, 胭脂 ” 燕支山에서 생산되는 풀이름이고, 또 燕脂, 臙脂, 焉支, 烟支, 胭脂를 만든다.
- 54) 史記(1959) 卷110, 中華書局, 2888 「與燕王書」 “匈奴名妻作關支, 言其可愛如烟肢也 ” 흉노의 부인은 關氏라 불리었는데 사람들이 연지처럼 아름답다고 하였다.
- 55) 程大昌, 演繁露, 上海圖書館藏鈔本, “古者婦人粧飾, 欲紅則涂朱, 欲白則傅粉, 故曰: ‘施朱太赤, 施粉太白.’ 此時未有胭脂, 故但施朱爲紅也. 胭脂出自虜地 ” 고대 부인들은 화장을 하는데 입술은 붉게 하고 하얗게 분을 바르고자 하였다. 옛말에 이르길 ‘朱砂는 붉고 분은 너무 하얗다.’ 이때 사용한 것은 연지가 아니고 단지 붉게 하기 위해서 바른 것이다. 연지는 전쟁에서 점령했던 그 지역에서 나왔다.
- 56) 方以智, 通雅 卷四十一, 琴書閣藏板, 浮産此藏軒刊行, “燕支, 今作胭脂, 古通焉支, 關氏, 燕脂; 字書因作 赤西土 赤支, 或 赤因脂” 燕支는 오늘날 胭脂를 만든 것이다. 고대 焉支, 關氏, 燕脂과 상통한다. 글자는 다르지만 ‘赤西土 赤因’, 혹은 ‘赤因 脂’를 만들어 뜻은 같다.
- 57)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4, 寧海都護府 山川條 “舍恨洞 : 在府南三里 其洞中燕脂溪 官妓所居” 崔致遠 撰, 「法藏和尚傳」
- 58) 槿花樂府, “내 언제 無信하야 님을 언제 짐작하라 臙脂는 커니와 面粉도 아닌노라 어디서 이 낭즈 가지고 날 피숫서 흐리오”
- 59) 李圭景, 五州衍文長箋散藁
- 60) 李翼, 星湖僿說, 第五卷, 萬物門
- 61) 최세진, 훈몽자회 중 ‘烟炷’
- 62) 前漢書 卷94, 上, 앞의 책

<표 2> 연지의 한자 발음

	焉	關	烟	燕	膳	胭
연	yan(1성)	e(4성)· yan(1성)	yan(1성)	yan(4성)· Yan(1성)(연나라)	yan(1성)	yan(1성)
지	zhi(1성)· zi(1성)	shi(4성)· zhi(1성)	zhi(1성)	zhi(1성)	zhi(3성)· zhi(1성)· zhi(2성)	ti(2성)· di(1성)

關氏는 ‘皇后’란 뜻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혼인시 신부의 얼굴에 연지(焉支)를 바른 것으로 추정되는데, 연지를 바른 신부의 얼굴이 아름다워 왕후(關氏)를 연지(焉支)라 불렀고, ‘焉支’ 또한 아름답다는 뜻으로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유추된다. 한편 唐代의 기록인 『북호록』에 의하면, 흉노에서 아내를 關氏⁶³⁾라 하는데 烟支처럼 가히 사랑한다는 말이다. 關자의 발음은 ‘烟’이고 氏의 발음은 ‘支’이다.⁶⁴⁾ 즉 關氏의 발음은 ‘연지’인데 그것은 부인만이 연지화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⁶⁵⁾ 연지가 부인의 대명사로 쓰인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을 보면 알씨(關氏)가 처음에는 왕비란 뜻으로 쓰이다가 나중에는 부인이라는 뜻으로 의미가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후에 흉노가 기련산과 연지산을 漢族에게 빼앗기자(B.C121년) 노래하기를 “우리가 기련산을 잃었으니 가축들이 번식을 못하고 우리가 연지산(焉支山)을 잃었으니 여인들의 얼굴색이 없구나.”⁶⁶⁾라고 비통해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흉노를 정복한 중국에서 焉支를 燕⁶⁷⁾나라에서 생산된다고 해서 ‘燕支’라고 표기하고⁶⁸⁾ 연지풀의 붉은 즙을 기름에 섞어 쓰면서 燕脂·膳脂·胭脂·烟脂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에서와 같은 燕支·膳脂·燕脂 등의 표기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연지는 흉노족의 焉支에서 연원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이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전파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江上波夫는 焉支는 烟支·燕支와 같은 것으로서 紅花 safflower(*Carthamus tinctorius*)⁶⁹⁾라고 하였고, 여러 학자의 논고(論考)를 통하여 불 때에도 명백하다⁷⁰⁾고 했다. 일반적으로 흉노 아내의 명칭인 關氏와 烟支·焉支 등이 모두 同音이라고 하였고, 등전(藤田)도 『십가재양신록』을 인용⁷¹⁾하여 焉提의 ‘提’에 ‘題’의音が 있음과 동시에, ‘是’의音도 있어 ‘支’와 같고, ‘焉提’ 즉 ‘關氏’는 ‘焉支’와 동음(同音)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白鳥는 關氏와 烟支는 각각 別個의音を 갖고 있다고 했다. 즉 關氏는 통구스어로 아내(妻)의 뜻인 asi, asi의 對音이며, 焉支는 ‘yen-ki’로 발음한다⁷²⁾고 했다. 이러한 여러 견해들을 볼 때 ‘關氏’는 ‘연지’와 ‘아씨’ 두 가지로 통용되었던 것으로 유추된다. 즉 關氏와 焉支는 각각 표기가 다른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듯이 본래 각각의 다른 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關氏(왕비, 아내, 부인: 아씨)와 미명(焉支: 연지)이 혼용되면서 두 가지 발음⁷³⁾이 다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오늘날 한자의 ‘關’字 발음에 ‘e’와 ‘yan’ 두 가지가 있는 것⁷⁴⁾을 감안할 때 더욱 확실해진다. 여기에서 ‘關氏’의 중요성은 그것이 우리나라 말에 미친 영향 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른 아닌 ‘關氏’와 ‘asi(아내)’, ‘asi’는 혹시 우리나라의 ‘아씨’(양반의 젊은 부인을 그 하인이 부르던 호칭)와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최창렬은 “‘아기’가 자람에 따라 높임의 뜻을 부여

63) 石崇의 王名君辭에 “匈奴名妾 作關氏”(흉노에서 첩을 ‘關氏’라 한다)고 하였으나 名義考에는 “妾字 乃妻子之訛”(첩이란 글자는 ‘아내’의 잘못이다)라고 하였다.

64) 段公路, 앞의 책, 45, “匈奴名妻關氏, 言可愛如烟支也. 關字音‘烟’, 氏音‘支’” 張泌의 『粧樓記』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關氏 單于妻號 謂可愛如烟支”

65) 段公路, 위의 책, “燕支染粉爲婦人色”

66) 太平御覽(1960) 卷719, 中華書局, 3186, “失我祁連山, 使我六畜不蕃息; 失我焉支山, 使我婦女無顏色.”

67) 원래는 흉노가 정복한 月나라이나 한자 발음이 같으므로 月을 燕으로 잘못 표기한데서 왔다고 하는 『法藏和尚傳』의 최치원說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68) 馬縞, 앞의 책

69) 江上波夫, 匈奴婦女의 顏色焉支に就きて, 東亞論叢(1940) 3集, 197

70) B. Laufer, Sino-Iranica, (1919) Chinese Contributions to the History of Civilization in Ancient Iran, Chicago, 324~328, 江上波夫, 「匈奴婦女의 顏色焉支 に就きて」, 『東亞論叢』 3集, 1940에서 재인용

71) 錢大昕, 十駕齋養新錄 卷4, 焉提條, “論衡亂龍篇, 金翁叔體屠王之太子也, 母死, 武帝圖其母於甘泉殿上, 署曰休屠焉提, 焉提即關氏也, 古書氏是通用, 提從是, 故亦與氏通”

72) 白鳥庫吉, 西域史上新研究, 東洋學報 第3卷2號, 180~183

73) es, es, as, esi, asi, asi : yan, 白鳥庫吉, 앞의 책

74) 中韓辭典, 關項

하는 접미사 '씨'를 덧붙여서 '아기씨'라고도 하고 '아기'의 애칭인 '아가'에 '씨'를 붙여서 '아가씨'라고도 호칭하였다. '아기씨'는 새댁이 시누이를 일컬을 때 아직 쓰이고 있으나 옛말스러운 느낌이 남아 있고, 그 준말인 '아씨'는 아랫사람들이 상전이나 주인댁 따님을 부를 때 쓰이던 더욱 옛스러운 말⁷⁵⁾이라고 했다. 그러나 '關氏'는 '아씨'와 '연지' 두 가지로 발음될 수 있다고 유추한 데서 한국어와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이러한 견해를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흉노에서 부인이란 의미의 '아씨'와 흉화의 의미인 '연지'가 함께 담긴 복합적 의미⁷⁶⁾의 '關氏'는 우리나라로 전파되어서는 본래의 의미를 살려 결혼한 주인댁 따님을 '아씨'⁷⁷⁾라 부르고 흉화의 의미도 원래대로 살려 볼에 찍는 붉은 안료를 '연지'라 분리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한자로 표기된 발음의 흉노어와 우리말이 관련이 있을 수 있다⁷⁸⁾는 추론은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무릇 복식이나, 특히 특징적인 신체장식의 명칭이 사람의 성별·연령·신분·계급 등에 따라 차별적인 호칭이 되는 경우는 동서고금에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중국에 있어서 미성년 남녀를 총각(總角)이라고 부르는 것은 머리카락을 두상(頭上) 꼭대기에서 뿔모양으로 묶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며, 터어키系 민족들 사이에 우즈베크語로 여자를 부르는 말인 'ak-baslik'은 '백두(白頭)'란 의미이고, 마찰語로 'feher szemely'는 '白人'이란 뜻이다. 이 모두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하얀 얼굴인 데에 그 어원이 있다.⁷⁹⁾ 또한 蒙古語의 'buseugei'(帶없음)는 여자 특히 '아내'를 말하는데, 이는 몽고 남자들은 반드시 帶를 매는 데 반해 여자 특히 기혼녀는 帶를 매지 않는 것에 기초한 호칭이다.⁸⁰⁾ 이러한 예로 볼 때, 복식이나 신체장식을 기초로 식별(識別) 호칭하는 풍속은 보편적인 일이며, 따라서 흉노의 아내가 焉支(흉화)를 얼굴에 바를 경우 그것으로 아내의 호칭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도 수긍할 수 있는 일이다.⁸¹⁾ "늘 연지로 화장을 했기 때문에 '아내(關氏)'와

발음이 같은 '연지(胭脂)'라는 미명(美名)을 얻은 것이다."⁸²⁾라는 구절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그렇다면 흉노 부인들은 연지화장을 어떻게 하였으며, 어떤 형태로 얼굴의 어느 위치에 발랐을까. 진(晉)나라 습착치의 『여사시중서』에, "여인들이 화장을 할 때 뺨에 바르는 것으로 크기는 큰 콩 만하게 하여 발랐는데 매우 선명하였다"⁸³⁾라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앞에서 기술한 연지(홍화)와 알씨(아내)가 같은 발음, 즉 아내의 미명이 홍화인 사실과 결부시켜 볼 때, 혼인의식 때 한 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표시로써 소원형(小圓形)의 점을 뺨에 바른 것을 시작으로 하여 성장(盛裝)할 때 상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연지를 바르는 위치는 콧망울 옆 붙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확실한 자료는 구하지 못하였으나, 성장을 한 몽고 귀부인 얼굴의 콧망울 양옆 붙에 소원형의 연지가 찍혀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흉노문화는 중원(中原)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북아시아 초원지역의 유연·돌궐·몽고 등에도 계승되었고, 특히 흉노와 後代의 몽고는 통시적 연관이 크기 때문에 흉노의 유습이 몽고에 계승(繼承) 또는 전승(傳承)되거나 잔존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리고 흉노가 漢에게 연지산(焉支山)을 잃자 "우리가 연지산을 잃었으니 여인들의 얼굴색이 없구나"라는 흉노 민요 한 수⁸⁴⁾로 흉노의 연지화장을 유추할 수 있다. 실지의 아픔과 슬픔을 민요화하는 지혜를 보였던⁸⁵⁾ 이들이 애환을 달래기 위해 노래로 부를 정도라면 연지가 흉노족 여자들의 중요한 화장소재였을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삼본정년(杉本正年)이 입술화장은 강렬한 태양 빛이나 한풍(寒風)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하기 위한 북방 유목민족의 풍습⁸⁶⁾이라고 한 것과, 장족(藏族)의 선조는 홍토(紅土)를 얼굴에 발라 풍사(風沙)를 피하고 피부가 터지는 것을 막았다⁸⁷⁾고 한 사실과 연관지어 볼 때, 흉노

75) 崔昌烈(1993), 우리말 語源研究, 一志社, 154~155

76) '아씨' : 부인(왕비, 아내)이란 의미; 원래의 발음으로 생각됨

'연지' : 흉화의 의미; 부인의 美名. 金沂宣에 의하면 '연지'는 붉은 볼의 여인이란 의미가 있음

77) 필자는 충청도 생인대 어렸을 때 기억으로, 시집 온 새색시가 어린 시누이를 부를 때, '아가씨'라고 불렀고, 그 시누이가 시집을 가면 '아씨'라고 불렀다.

78) 關氏(알씨)=아씨→아씨, 焉支, 燕支(연지, 연지)=연지→연지

79) H. Vambery(1879), Die Primitive Culture des Turko-Tatarischen Volkes, Leipzig, S.60, 江上波夫, 앞의 책, 재인용

80) J. Gilmour(1937), Among the Mongols, London, 320, 江上波夫, 위의 책, 재인용

81) 江上波夫, 앞의 책, p.201

82) 高春明(2001), 中國服飾名物考, 上海文化出版社, 344, "常常以胭脂粧臉面, 故得了'關氏'的美名, '關氏'的讀音如同胭脂"

83) 習鑿齒, 與謝侍中書, ".....婦女粧時作頰色, 用如豆許, 按令遍頰, 殊覺鮮明."

84) 史記 匈奴傳, 索隱條, '西河舊事', "失我 焉支山, 使我婦女無顏色"

85) 정수일(2001), 고대문명교류사, 서울: 사계절, 287

86) 杉本正年 (문광희 역)(1997), 동양복장사논고 -중세편-, 서울: 경춘사, 56

여인들이 안색이 좋도록 퍼 발랐다고 한 것은 일반적인 미용화장이라기보다는 피부가 트는 것을 막는다든지 하는 위생적 연지화장의 가능성이 보다 큰, 자연 환경적 여건과의 관련성이 높은 화장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흉노의 연지화장은 두 가지였으며 큰 콩모양의 소원형으로 점을 찍듯이 콧망을 옆 볼에 바르거나 얼굴에 안색이 좋도록 넓게 퍼 발랐던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V. 연지의 色彩象徵 및 效能

1. 연지의 색채상징

연지는 붉은 색의 상징적 기호라고 할 수 있다. 즉 연지의 특성은 색이 '붉다'는 것이다. 우리말 '붉다'는 '불'에서 전성(轉成)된 것이고⁸⁸⁾ 한자(漢字) '赤'⁸⁹⁾은 만물을 무성하게 하는 南方色이다. 붉은 색은 인류가 흰색과 검은색 다음으로 인식한 색이지만, 그 상징성은 흰색이나 검은색보다 강하다. 즉 붉은 색은 일반적으로 태양과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인류는 원시시대부터 중요한 상징적 기호로 이용하였으며 그 방법의 하나가 인체의 채색이다. 특히 인체에 색을 칠하는 채색은 영구적이고 불변적인 문신과 달리 일시적이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부족이나 민족에 따라 그 사용이 다르고 또 시대에 따라 그 상징적 의미가 변천하였다.

『삼국사기』에 “이를 말함에는 맹서로써 하며 회생된 백마의 피를 서로 입에 찍어 바름으로써 함께 시종(始終)을 돈독히 하여 서로 재해를 나누고 환난을 구원하며 은의를 형제와 같이 해 잘 운운을 받들고 감히 이를 잊지 말며 맹약한 후에는 함께 의리를 잘 지켜라”⁹⁰⁾는 기록이 보인다. 붉은색이 맹세를 상징하여 입술에 발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을 비롯한 동양 각 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단주(丹朱)를 사용하여 얼굴이나 손에 바르는 것이 꼭 화장을 위해서만이 아닌 복종을 의미하는 표식으로써, 또는 상대방을 신성시하는 맹서를 의미하는 표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다.⁹¹⁾

한편, 빨간 순색의 경우 색의 이미지는 왕성한 것의

상징이며 태양·불·피의 연상에서 생명·정열·양기(陽氣)·강렬·흥분·활동·희망·기쁨·행복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러나 반면에 유아·위험·혁명·야만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마귀의 호술 색으로서 고대부터 이용되어 오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밝은 붉은색의 경우는 달콤한 뜻과 함께 놀이의 요소가 있고,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의 색으로서 꿈·수줍음·부끄러움·행복·건강·생명·결혼·봄·봄꽃·온화함·어림·젊음·청결·순정 등을 연상한다.⁹²⁾

어느 언어에서건 '밝음'과 '어두움'을 가리키는 단어가 제일 먼저 생겼다고 한다. 밤과 낮의 구별이 다른 어떤 색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이며 대개는 이들 단어에서 흰색과 검정을 가리키는 색 이름이 유래했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색채 이름으로서의 빨강이 가장 먼저 생겨났다.⁹³⁾

뉴질랜드의 원주민 여성들은 얼굴을 빨강계 자토(赭土; 붉은 흙, 적갈색)로 채색하였고 타히티섬 사람은 검은 안료를 피부 속에 넣는 방법을 알고 있었으며, 다색(茶色)의 피부를 가진 마리오족 여성은 입술에 검은 문신을 했는데, 붉은 자토를 바르기도 하였다. 그 밖에 뉴헤브리데스諸島の 원주민들은 흑연을 얼굴에 발라 실제의 얼굴보다 검게 보이게 하였다. 한편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신체와 얼굴을 회계 바른다⁹⁴⁾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보듯 옛날부터 여성의 얼굴화장에는 흰색·검은색·붉은 색이 기본적으로 사용되었다.

고대 인류가 이처럼 적색(赤色)을 좋아한 것은 태양이 주는 빛과 불이 곧 그들 생활의 유일한 근본이었고, 종교에 가까운 신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적색은 사회권력과 정신력을 표현하는 동시에 상층계급을 가리키는 색이기도 하였다. 중국의 경우 적색은吉한 색이라 하여 건축물이나 생활 주변 여러 곳에 칠하여福을 구하였다고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로 잡귀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즉 주술적 의미와 약물적(藥物的) 의미로 사용되어 생활 습속으로 정착되었다. 이것을 적색민속(赤色民俗)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실례를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부적(符籙)은 반드시 주색(朱色)으로 한다거나, 손톱을 붉게 물들이면 여러 병이 낫는다거나, 주사(朱砂)를 가지고 다니면 악귀가 침범하지 않는다거나, 부모의 혼사 때 사용하던 청실홍실

87) 那莉(1995), 中國女性民俗文化, 中國案出版社, 179

88) 정호완(1991), 우리말의 상상력, 서울: 정신세계사, 119

89) 說文: 南方色也, 釋名: 太陽之色也, 注: 心色也,

90)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

91) 김덕록(1997), 화장과 화장품론, 도서출판 담계, 23

92) 유태순·조기여·배현숙·이화순·신지현·김영란(2000), 색채학, 대구: 도서출판 성화, 85

93) Eva Heller, 이영희 옮김(1999), 색의 유혹 재미있는 열세가지 색깔 이야기 I, 예담, 89

94) 城 一夫(1994), 色彩博物館, 明現社, 89

을 두르면 어린아이 병이 없다가, 아들을 낳았을 때 금줄에 붉은 고추를 단다거나, 동짓날 팔죽을 먹으면 방역된다거나, 팔을 우물에 넣으면 악귀를 막을 수 있다거나, 이사하면 팔죽이나 팔밥을 해 먹는다거나, 이불의 색을 잇꽃색과 쪽색으로 기본을 삼는다거나, 신부의 얼굴에 연지를 찍는다거나, 두창이 유행할 때 마을 입구에 장승을 세운다거나, 적색 두루마기를 걸어 놓는다거나, 감기에 팔죽을 먹는다⁹⁵⁾ 등등 오늘날까지도 적색민속은民間에 널리 남아 있다. 또한 적색은 식별수단(識別手段)으로 사용되었는데, 호적에 붉은 줄을 긋거나 죄인을 붉은 글씨로 표시하는 것, 그리고 관위(官位)에 따른 복제(服制)에서 상층계급의 색으로 적색을 사용한 것 등이 그것이다.

또한 고대인들은 적색을 화장과 장신구에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신비한 생명력의 표현이기도 하고 타오르는 불에 의해 악마를 물리칠 수 있다는 사고의 발현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신체의 구멍을 통해 악마가 들어오지 않도록 적색을 칠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성적감각(性的感覺)의 효과도 생기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원시인은 생식기에까지 적색을 칠했다⁹⁶⁾고 한다.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침팬지나 원숭이 등 동물들의 생태를 연구한 동물학자들도 생식기(生殖期)(發情期: sex season)에 입술·영덩이·앞가슴 등이 붉은 색으로 성징(性徵)이 변하는 것은 종족 번식을 위한 성적유혹(性的誘惑), 성적매력(性的魅力)의 과시(誇示)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한편 이와는 달리 발정기가 항상화(恒常化)된 인간은 발달한 성(性)문화를 갖게 되고 붉은색에 의한 이성(異性) 자극이 불가피하였다고 보고 있다.

이상의 논술을 토대로, 연지의 붉은색이 갖는 상징과 그로 인한 어떤 특성이 인간으로 하여금 화장에 붉은색을 선호하게 하였는지를 유추하면 불·태양·피와 연관된 인식에서 비롯된 주술성과 생명력, 성적감각의 효과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주술성은 인간의 육체적 무력(無力)에서 오는 존재의 불안감·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함이며 안전한 존립(存立)에 대한 염원이다. 생명력은 정열·양기(陽氣)와 관련된 혈색을 나타냄에 따른 활기 왕성한 아름다운 젊음의 발산이며 지속이다.

그리고 성적감각의 효과는 흥분·열정·유혹과 관련된 종족유지, 영속적인 생명의 존속(存續)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붉은색은 주술성과 생명력, 성적감각의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인류가 연지를 통하여 붉은색을 선호하게 된 것은 인간의 원초적 욕망인 안전한 존립과 젊음의 유지, 생명의 존속에 유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연지의 효능

연지의 효능(效能)은 연지의 특성인 붉은색으로 얼굴을 단장하는 '홍장(紅粧)'에 있다. 홍장은 이익(李瀾)이 '적(적)'이라 하였듯이 얼굴을 밝게 하는 데 있다. 그러나 홍장은 얼굴 전체를 붉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부위, 즉 뺨(얼굴의 양옆에 살이 도둑한 부분)·불(뺨의 가운데 부분)·입술·이마 등에 바르거나 칠하는 것이다. 얼굴의 색조 화장에서 흰 곳을 더욱 희게, 검은 곳은 더욱 검게 하는 것을 '기본적 화장'이라 하고, 붉은 곳은 더욱 붉게 하는 것을 '첨가적 화장'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이른 시기에 기본적 화장이 등장되고 늦은 시기에 첨가적 화장이 등장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특히 젊은 사람의 뺨은 붉은 기운이 돌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이 젊게 보이려고 연지를 발랐으며 붉은 입술은 아름다움을 드러내주는 효과 때문에 입술에 연지를 칠하였다. 이는 부인들에게 연지가 긴요한 화장 재료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분단장과 관련된 자료로서 조선 후기 실학자 안정복(安鼎福; 1712~1791)이 번역한 한문소설 『여용국전』⁹⁷⁾이 있다. 이것은 화장 용구를 의인화한 가전(家傳)인데 여기에서 여용국은 여자 얼굴을 말한다. 여용국의 효장황제는 능허대인 경대에 즉위하여 수하(手下)에 분·연지·곤지 등 18大臣을 두었는데, 한 나라의 정치를 화장에 비유한 것으로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 치세에 힘쓰면 나라가 태평하나 안일하면 어지럽게 된다는 것을 풍유(諷諭)하고 있다. 『여용국평란기』에 보면⁹⁸⁾, "주연(朱鉛)은 연지로서 태부(太傅)직을 맡고 있고, 빅광(白光)은 분인데 쇼부(小

95) 조경래(2000), 천연염료와 염색, 형설출판사, 42

96)樋口清之(1982),化粧の文化史,東京國際商業出版社, 10~11

97)漢文本 女容國傳 (일명 효장황제장대기공록;孝莊皇帝粧臺紀功錄)은 이 한글본 『여용평난기』를 順菴 안정복이 번역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李家源(1961),女容國傳 解題,李朝漢文小說選,서울:民衆書館, 136

98)崔勝範,「女容國平亂記 小攷」,藏菴池憲英先生華甲紀念論叢(간행회, 1971),에서 옮김. 원문의 '간의태우'는 '간의태부'의 잘못으로 보아 바로 잡았다. 효종황제(孝莊皇帝) 새로 능허대(凌虛臺) [경대]의 즉위하리 동원청(銅圓淸) [거울]으로 승상(丞相)을 삼아 국등 대소스를 슬피게 하시니 원청의 즈는 명경(明鏡)이오 별호는 도감선생(都鑑先生)이라. 경신이 묵고 늦치 두렷하니 상허 황제 좌우의 피서 용모(容貌)의 부정홍과 의관(衣冠)의 히타호를 다 간(揀) 하야 고치게 하니 황제 극히 공경하시고 등히 넉이더라 쏘 슈하(手下)의 십팔대신(十八大臣)이 이시니 태부(太傅) 주연(朱鉛) [연지]과 쇼부(小傅) 빅광(白光) [분]과 병부시랑(兵部侍郎) 방취(芳泉) [녹향]와안무스(按撫使) 빅원(白圓) [면분]과 순안스(巡按使) 남용(蠟容) [밀기름]과 도어스(都御使) 차연(叙延) [빈허]과 간의태부(諫議太夫) 윤안(潤顔) [곤지]과 한림학사(翰林學士) 검박서(檢博書) [검박지]와 안찰스(按察使) 유진(油眞) [촉기]

傅)직을 맡고 있다”는 표현이 있다. 여기에서 나타나듯 연지가 분(粉)보다 중책을 맡고 있는 것은 연지가 분보다 중요시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얼굴의 채색은 고대에는 주술적 요소가 강했지만 후대로 내려오면서 미용적(美容的) 요소가 강조되었다. 화장은 자연적 얼굴의 아름다움을 더욱 선명하게 가시화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때문에 얼굴화장에서 흰 곳은 더욱 희게 하기 위하여 분을 바르고, 붉은 곳은 더욱 붉게 하기 위하여 연지를 바르거나 짙게 되었다.

VI. 결론

인류의 화장시장이 세계적인 보편화의 흐름위에서 빠른 유행의 조류를 타고 있는 오늘날, 문헌을 통한 역사적 연지화장연구는 화장의 원형을 직시하고 화장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연지화장 연구의 제1보로서 화장에 대한 문화적 배경과 역사적 추이를 통하여 화장의 기원과 연지의 시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화장은 인류의 발생과 함께 그 징조가 나타났으며 문화가 발달됨에 따라 주술적 기능 위에 미적 기능이 더해지면서 역사적으로 발전 진보되어 왔다. 이러한 인간의 행위는 시공을 초월한 영속적이고도 안전한 개체 존속에 바탕을 둔 생명 유지 또는 그에 대한 애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즉 종족 유지를 위한 성적 과시가 화장의 기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붉은 색은 종족유지를 위한 성적 과시에 그 효용성이 매우 컸으므로 화장 심리의 핵심은 ‘붉은 색’의 드러냄에 있게 되고 이러한 욕구에 따라 붉은 색이 화장품에 매우 일찍부터 사용된 것이다. 그리고 연지(홍화)라는 식물의 원산지는 이집트로 알려져 있으나 화장품으로서의 연지의 시원은 흉노족에서부터이다. ‘연지’란 말은 흉노어이며, 焉支·燕支·烟支·關氏는 모두 동음(同音)인데, 이들 한자 표기는 중국 어로의 음역(音譯)이며, 우의적 표기(寓意的 表記)이다. 焉支·燕支·烟支는 홍화라는 말이고, 關氏는 황후·아내라는 뜻으로서 ‘연지’와 ‘아씨’ 두 가지로 발음되었다.

주제어 : 화장, 연지, 기원, 화장품

참 고 문 헌

- 金沂宣(1995). 胭脂, 檀君의 어원고찰, 한국몽골학회, 몽골학, 3.
- 김덕록(1997). 화장과 화장품론, 도서출판담계.
- 동아세계대백과사전(1982). 서울: 동아출판사.
- 박용숙(1990). 한국미술의 기원(미술사 근본 문제), 서울: 藝耕.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
- 杉本正年, 문광희 역(1997). 동양복장사논고 -중세편-, 서울: 경춘사.
- 宋旼貞(1991). 우리나라 傳統化粧文化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Eva Heller, 이영희 옮김(1999). 색의 유혹 재미있는 열세가지 색깔 이야기, 예담.
- 유태순, 조기여, 배현숙, 이화순, 신지현, 김영란(2000). 색채학, 도서출판 성화.
- 李圭景, 五州衍文長箋散藁.
- 李翼, 星湖僮說, 第5卷, 萬物門.
- 정수일(2001). 고대문명교류사, 서울: 사계절.
- 鄭容熙, 李炫沃(1998). 傳統化粧文化에 나타난 연지(臙脂)의 변천에 관한 고찰, 복식문화연구, 6.
- 정호완(1991). 우리말의 상상력, 정신세계사.
- 조경래(2000). 천연염료와 염색, 형설출판사.
- 崔昌烈(1993). 우리말 語源研究, 서울: 一志社.
- Hiroto Murasawa(2002). 치장과 변신을 위한 화장, 한국의류산업학회지, 4(1).
- 高春明(2001). 中國服飾名物考, 上海文化出版社.
- 那莉(1995). 中國女性民俗文化, 中國案出版社.
- 馬縞(1939). 中華古今注 卷中, 商務印書館.
- 史記 匈奴傳, 索隱條.
- 前漢書, 卷94, 上.
- 崔豹(1919). 古今注 卷下, 掃葉山房石印本
- 久下司(1996). 化粧, 東京: 法政大學出版局.
- 大坊郁夫, 神山 進 編集(2000). 被服と化粧の社會心理學, 北大路書房.
- 白鳥庫吉, 西域史上的新研究, 東洋學報, 3(2).
- 服裝文化協會(1981). 服裝大百科事典(增補版) 上, 東京: 文化出版局.
- 杉本正年(1984). 衣の文化論(2), 衣生活, 5(2).
- 江上波夫(1940). 匈奴婦女の顔色焉支に就きて, 東亞論叢, 3集.
- 城一夫(1994). 色彩博物館, 明現社.
- 資生堂ビューティーサイエンス研究所編(2001). 化粧心理學, フレグランジャーナル社.
- 青山行夫(1976). おしやれの文化史, 東京: 平凡社.
- 青木英夫(1979). 西洋化粧文化史, 源流社.

樋口清之(1982). 化粧の文化史, 東京國際商業出版社.

(2005. 04. 22 접수; 2005. 06. 01 채택)